

일반

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The Encounter betwee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and
Social Value Discussions through the Concept of Spatial Capability

신혜란**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공간적 탐색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비판적 공간연구 논의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위해, 이 연구는 장소 만들기과 공간 이용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간적 역량 강화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공간 이론화하여 정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뜻한다. 첫째,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둘째,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셋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적 가치와 공간적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개혁 방법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주요어: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역량이론, 공간, 장소 만들기, 거주, 이동

* 이 연구는 2021년 서울대학교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의 사회적 가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여성학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겸무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겸무연구원(haeranshin@snu.ac.kr).

1. 서론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논의를 공간연구와 연결시키려는 이론적 탐색이다. 이 글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수자 권익, 삶의 질, 가용적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 기업, 조직, 거주민들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가치’를 뜻한다. 사회적 가치 개념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어서 맥락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현재는 경제성장에 몰두하는 사회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인권, 복지, 협력, 공동체, 지속가능성, 참여, 배려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혁신 개념은 ‘주민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뜻하며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Mulgan et al., 2007). 이 두 개념은 다른 것이지만,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노력에서 서로 전제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정서화, 2017). 사회적 가치를 통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해법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 비판적 공간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논의를 사회적 가치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¹⁾ 개념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공간적 탐색과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논

1) capability를 대체로 역량으로 번역하고 있고, 대표적인 학자인 Nussbaum의 책 *Creating Capabilities*도 『역량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도 역량으로 쓴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역량은 competency나 capacity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다. capability는 경제적·신체적·제도적·문화적 형편에서 오는 자유, 가용적 기회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의를 연결시키는 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공간적 역량은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공간을 이용하고 가로지르는 이동에 대한 역량과 자유를 뜻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요구와 성과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문지리학, 도시연구에서 비판적 공간연구가 발전하였다. 핵심 주제는 근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에 따른 공간 불평등 문제와 자본주의 특성이 필연적으로 가져온 자본의 축적과 공간구조(조명래, 2013; Sonn and Shin, 2020)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국가 변화, 세계화를 위시해 공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주체, 해결방식이 전반적으로 복잡해졌다. 문제가 나타나는 방식과 해결책이 얽히고 국가, 기업, 시민사회 3주체 사이의 구분이 불투명해졌다. 비판적 공간연구에서 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이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비판의 주체였던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큰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제 해결을 통한 변화 등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식(박세훈, 2015)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비판적 공간연구는 비판을 넘어서는 지향점과 실천 과정에 대한 모색이 필요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은 것이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이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강조되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담론으로 떠올랐다(Lindgreen et al., 2019). 유럽연합에서는 1998년에 혁신체제론을 발표했고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다(정서화, 2017). 영국에서는 제3의 길과 큰 사회론(Big society)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주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해결책을 내고 실천하는 사회혁신 접근이 발전하였고 사회적 가치 법까지 만들어졌다. 21세기에 들어서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은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 공공서비스, 복지 영역에서 주요 개념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2005년경부터 사회적 가치 이슈가 언론, 학계, 정책에

서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나오기 시작했고(김용희·한창근, 2020),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면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급격히 올라갔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이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이 비판적 공간 연구와 서로 보완할 점이 많은데도 뚜렷한 접점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 영역이 지역에 기반한 주택, 도시개발과 같은 장소 만들기, 주거 공간, 교육 공간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도, 사회적 가치 논의가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그 공간적 측면은 소홀히 연구되었다. 한편 지리학, 도시연구에서 행해진 비판적 공간연구는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지향점과 방법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받아들이는 데 다소 소극적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의 중심 주제를 공간적 문제에서 재 해석하고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살리고자 한다. Amartya Sen의 역량 접근(capability approach)은 사회적 가치 논의와 Henri Lefebvre의 ‘도시를 위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연결되었던 개념이다. 이 연구는 그 역량 개념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개진한다. 공간적 역량 개념은 도시권 개념에 비해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뚜렷한 기준, 간과할 수 있는 집단 내 불평등을 보게 하는 강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역량은 공간생산, 공간이용, 이동의 영역에서의 역량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이 논문의 2~6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장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비판적 공간연구에서 사회적 가치와 연관이 깊은 논의를 검토하고 사실상 사회적 가치 논의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것을 논한다. 4장에서는 역량이론을 발전시킨 공간적 역량 개념을 통해 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를 연결시킨다. 5장은 공간적 역량을 공간생산, 공간이용, 이동의 영역에서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공

간연구의 연결, 공간적 역량 접근의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밝힌다.

2. 사회적 가치의 기존 논의 배경

현대 시각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 자체는 특이할 게 없지만, 이 개념의 초기 논의에서 사회적 가치와 대척점이 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 혹은 자본의 물신화였다. 예를 들어, 1909년 Schumpeter(1909)는 근대 이론이 개인적 가치만 추구했다고 비판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한시·훼손되는 공동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사회적 가치와 비슷한 선상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넓게는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Tiwari, 2017). 사회혁신은 Robert Owen이 선도한 19세기 생협운동에서 발전한 터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염찬희 외, 2010)를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논의가 일부의 규범에서 확장하여 학계,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회 작동방식, 삶의 양식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흐름 속에 사회적 가치 개념이 주목을 받았다. 이 사회적 가치 논의는 철학적·이론적 접근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김태영 외, 2019: 36. 이론적 논의를 위해 김경동, 2019 참고).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비판은 노동자 착취, 노동 소외 문제를 제기했고, 여성주의, 환경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주류·비주류 위계의 문제, 전 지구적인 소비, 생산, 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이상헌, 2013).

예전 사회 문제 논의에 비하면, 사회적 가치 논의는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계급 계층의 문제에서 보편적 인류의 삶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장용석 외, 2018). 구조적인 체제의 위기, 경제성장을 위주로 하는 제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상식, 이데올로기, 일상, 관계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이 중심이었다. 구체적인 지역 문제부터 전 지구적 문제로까지 다양한 스케일이 포함되어 논의되었다. 그 대안으로 협력의 경제,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제시되었다(고동현 외, 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에서 내세우는 주체와 방법론은 적극적인 시민사회와 기업이다(Moore, 2013; Wieland, 2017). 사회 문제의 복잡성과 종합성 때문에 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결책을 내는 것이 무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위기, 정당성 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가 여러 사회에서 대안적 형태로 제안되었다(Donaghy, 2013; Shin & Lee, 2017).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논의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보조자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낼 것을 요구한다. 구분하자면 사회적 가치 논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사회혁신은 그 초기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정서화, 2017)를 전제하고 고무하는 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들 간의 유연하고 종합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특히 사회혁신은 시장, 정부, 시민사회, 가정/가구의 교차점을 뜻하기도 하고(The Young Foundation, 2010) 지역사회 주민이 사회적 요구에 답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조직하는 역동성과 대안적 지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미우라 히로키·김의영, 2020). 또한, 사회혁신은 권력관계를 바꾸고 인간역량을 증진하고 문제 해결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생각과 해결책을 내는 것을 뜻하기도(Chiappero-Martinetti et al., 2017) 한다.

나라와 지역에 따라 대안을 가져오는 스케일과 방식도 점점 다원화되었다. 국가 차원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행해졌고, 중범위 수준의 사회혁신 연구는 캐나다, 덴마크, 영국 등에서 나왔으며 미시적 접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아이디어, 서비스를 강조하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중심 학계에서 나타났다(정서화, 2017). 방식이 비조직적이며 프로젝트 기반으로 유연한 형태를 띠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 학계에서 성장 중심의 근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성찰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존 문헌은 2004년경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의 물음 아래, 정의, 연대, 평등, 인간 존엄을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로 두고, 구체적인 구성요소로 인간 안보, 사회적 승인, 사회적 응집성, 개인의 역량을 거론했다(이재열, 2019). 또한 재생산, 가족과 공동체의 위기(이재열, 2019), 시장 가치와 비시장 가치(한상진, 2019)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well-being), 사회적 자본과 환경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및 조직적 개입의 비경제적 영향력”(이상우, 2020)으로 보기도 했다.

한국 학계 내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분야와 조직에 걸쳐 규범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과 혁신, 공동체와 공공성, 상생과 지속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그 실행 영역으로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서비스는 물론이고 기업과 시민의 역능성도 포함하고 있다(박명규, 2018). 사회적 가치가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방송정책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정인숙, 2019), 사회적 가치 평가 모형(한상진, 201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개념과 평가 내용(라영재, 2020), 지방공공기관(원구환, 2019)의 역할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 사회적 가치의 정부 주도성이 두드러진 계기는 2018년에 문

재인 정부가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3대 전략을 수립하면서이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으로 정책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²⁾는 것이었다. 그 당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였다. 세부 분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참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논의의 성장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보는 사회적 가치 논의의 한계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사회 담론에 비해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은 지역에 관련한 가치와 방법을 더 강조하는 편인데도 공간적 논의가 부족했던 점이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들게 한 사회 문제의 많은 부분이 수탈적 도시발전, 식민화된 일상이 나타나는 공간 생산(최병두, 2018), 불로소득 자본주의(김용창, 2021)와 연관되어 있는데도 그러했다. 둘째, 게다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논의가 확대되면서 경계가 흐려지고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부분이 희석되고 다소 비정치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Tiwari, 2017).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은 대중성이 확대되고 정부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쓰이면서 순진한 지역주의(localism), 낭만적 동네 정치, 중앙관료적 시각이라는 우려와 비판(Chatterton, 2016; Chatterton and Pusey, 2020; Mulgan, 2007)이 지속되었다. 특히 중립적인 혁신성, 방법론에 치중하면 그 본질

2) 행정안전부,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정내부 개혁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혁신 추진」, 2018년 3월 19일 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476(검색일: 2021년 6월 30일).

인 사회적인 의미가 줄고(Mulgan, 2007) 민주성이 훼손된다는(정서화, 2017)는 비판이 대두하였다.

3. 비판적 공간연구에서 사회적 가치 연관성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적 공간연구자들은 줄곧 철학적 의미의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비판적 공간연구자들은 도시개발, 경제적 성장, 기술 발전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난 이윤추구 위주의 도시개발, 서울 집중과 지방 소외 현상, 부동산 불평등, 도시공간에서 장애인, 여성, 소수자 배제,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논의를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비판적 공간연구는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비판이론에 기반하여 공간과 장소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와 성장주의를 비판했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과 여성주의 지리학이 공통적으로 기여한 점은 단일한 실체로서 공간이 아니라 불평등에 의한 공간 분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과 여성주의 지리학 논의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 1970년대 초반부터 서구에서 활발해진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은 공간, 장소, 지역, 로컬리티가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에 관한 현상을 이론화했다(로즈, 2011. 한국 개발국가의 경우는 손정원, 2006; 이석희·김수현, 2014).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공격적인 도시 재개발로 세입자인 도시 빈민들이 대책 없이 철거를 당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끝없이 오르는 상가 골목에서 세를 든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떠오르자 마르크스주의 공간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저소득층의 주거가 사회 문제화되자(이덕복, 1993) 정부의 개입이 높아지며 공공임대주택이 제안되고(김수현, 1997), 하향식 도시정

책이 비판받으며 주민참여가 논의되고 고무되었다.

기존 비판공간 논의들은 자본주의에서 주택, 사무용 건물, 컨벤션 센터와 같은 건조환경에 대한 투자(자본의 2차 순환)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늦춘다고 지적(Harvey, 2018; 임조순·양준호, 2017)했다. 또한, 근대 재산권의 한계(김용창, 2019)와 도시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세력이 개발세력과 결탁한 사례에 대한 비판(홍기창·김천권, 2012)도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도시 엘리트가 추구하는 도시성장이란 자본의 논리와 같고 한국의 토건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박배균, 2009)는 비판적 시각도 가져왔다.

2000년대 그 비판에 대한 대안 모색이 증가하면서 경제, 지역 정체성, 문화적 매력을 다 높이고 함께 상생하자는 도시재생이 대안으로 나왔다(이영아, 2019; Shin and Stevens, 2014). 저소득층의 주거가 사회 문제화되자 정부의 개입이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였고, 사회적 기업들이 공유재로서 짓는 사회 주택에 대한 연구(신수임, 2020; 오도영 외, 2015)도 이루어졌다.

둘째, 여성주의 지리학(feminist geography)에서는 공간구조는 단순히 사회활동이 일어나는 그릇과 같은 장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생산하고 억압과 현실을 재생산하고 드러내는 매개물(Gregory, 1986: 451; 정현주, 2012)로 보았다. 그러면서 지리학이 남성들, 특히 백인 중산층 남성의 시각에서 보는 공간, 장소, 경관을 인류 공통의 것인 양 일반화시켰다고 비판했다(McDowell, 2010; 로즈, 2011; McKittrick, 2006). 이렇게 여성주의 지리학은 사회적 가치를 공간 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켰다.

여성주의 지리학은 여성뿐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밀리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힘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간이 생산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여성주의 지리학은 2000년대에 들어서 공간의 규칙은 차별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위계적인 관계가 어떻게 공간구조에서 반영되고 공간구조의 영향을 받는가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김현미, 2008). 또한 심화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국가를 뛰어

넘는 지구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국제 이주와 이주자들의 삶에 관심이 증가했는데, 비판 지정학적인 접근에서는 일상의 물질과 실재(materiality)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주의를 기울였다(Dixon and Marston, 2015).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공적 공간은 글로벌 공간과 남성의 공간으로, 사적 공간은 로컬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치환(안숙영, 2012)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존 비판공간 논의 중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개념은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즉 ‘도시권’이다. 르페브르가 주장한 도시권은 국적, 시민권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거주자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자 없는 이주민이 동일하게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급진적 개념이다. 비판적 도시연구는 ‘도시권’(Harvey, 2012; 강현수, 2021) 논의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 권력, 나이,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주거 공간, 일터, 도시 기반 시설과 공간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시공간 형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 도시권 개념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공간적 역량 개념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권의 범위는 상당히 종합적이어서, 예를 들어 거주민들이 집합적 작품으로서 도시를 만들 작품의 권리, 전유의 권리, 도시 거주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강현수, 2021).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여성의 생활공간, 일상 공간이 학문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르페브르는 또한 식민화된 일상성, 즉 사람들이 자본주의 도시의 발전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구체적인 일상 공간의 중요성을 얘기하였다(최병두, 2018).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계량화, 단일화, 상품화되고 국가가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경찰 공간(police space)이 된다고 비판하며, 공간적 실천(이상적인 일상이 구현되는 장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Lefevre, 2009).

세계적으로 2015년 이후 사회혁신 연구가 급증했고 한국 학계에서도

공공영역 혁신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정서화, 2017). 지난 몇 년간 공간 연구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그 예로는 공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례를 본 공간연구(조명래, 2016)와 공간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본 연구(주성재·노경란, 2018)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운영 방향과 기조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후 지리학, 공간 연구 분야에서는 공기업에 관한 사회적 가치, 공기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라영재, 2020; 원구환, 2019)가 있었다.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건설산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정철, 2019), 국책 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권청재, 2019)도 논의되었다.

사회적 가치 개념을 공간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탈자본주의 논의와 커먼스, 리빙랩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일 것이다(Schmid and Smith, 2021). 탈자본주의는 깁슨 그레엄(Gibson-Graham, 1996. 번역본은 2013)의 논의에 기반하여 경제, 커뮤니티, 주체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논의했다(Chatterton and Pusey, 2020). 지리학과 공간연구에서 탈자본주의 논의는 주로 자본주의적인 공간이용에 대해 비판하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위해 커먼즈, 도시농업, 임대주택, 저탄소 주택 도시권 운동 등을 대안으로 내었다. Chatterton and Pusey(2020)는 자본주의 종획이 아닌 집단적 공간소유(커먼스), 상업화를 대신하는 사회적 생산, 소외가 아닌 주인된 실천을 탈자본주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탈자본주의 행위인 플랫폼 협동주의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와 창조경제 내에서 커뮤니티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자율관리, 노조화, 공유 소유, 도덕적 가치, 부 공유, 사회적 가치 창조에 대한 관심이다.

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차이는 구조주의적 접근(비판적 공간이론의 주된 접근)과 문제해결 접근(사회적 가치 이론의 접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이 두 접근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긴장이 있었다. 비판적 공간연구가 사회계급의 집단적인 사회 저항, 정치 참여, 협

상(예를 들어 최병두, 2018; 황진태·정현주, 2015)을 강조한다면, 사회적 가치/사회혁신 논의는 가치 발견적 탐구모델에 기초하여 자원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보인다(이승원 외, 2017). 그 때문인지 몰라도, 자본주의 개발방식, 환경 문제, 불평등과 포용 도시(박인권, 2015; 진종현, 2017)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던 비판적 공간연구는 여전히 사회적 가치 논의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비판적 공간연구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의 접근이 개념은 정부주도의 규범인데다 실행은 지극히 미시적이며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게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 연구에서 공간적·지역적 측면을 깊게 파고들지 못한 부분을 강화시켰다.

그 거리의 결과, 사회적 가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공간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문제의식을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작업은 구조주의적 비판을 넘어서 지향점을 명확하게 해주고 문제해결 과정에 고민을 주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비판적 공간연구가 성장 위주의 도시공간 개발을 이끄는 결정 과정, 좋은 환경을 강자가 독식하는 현상, 불안정한 삶을 가지게 되는 소수자의 문제(신혜란, 2017)를 다루었지만, 이런 구조적 비판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다. 비판적 공간연구가 지향하는 점이 사회적 가치 논의와 맞닿는 지점이 많고 서로에게 기여하기 때문에, 비판적 공간적 연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으로 대표되는 전환에 대한 공간연구의 분석이 필요하다.

4.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공간연구의 만남

이 글은 그 접점의 이론 틀로 사람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가용적 기회를 뜻하는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1992, 1999)을 제안한다. Sen의 역량이론(Sen, 1992, 1999)은 선택할 자유와 가용적 기회를 뜻하는 역량(capability)을 활동 자체(functioning)와 구분한다. 예를 들면 여행은 functioning이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 즉 기회가 있고 형편이 되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capability이다. 굶는 활동 자체는 functioning인데, 같은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없어서 굶는 것은 역량이 제한된 경우이고 종교적인 실천으로 단식을 하는 것은 역량이 보장된 것이다. 복지경제와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친 Sen(1992)은 무엇의 평등이냐고 질문하며 평등을 생각할 때 역량이 보장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의 목표는 다름 아닌 인간역량의 확대에 있으므로, 경제적 성장은 역량, 즉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역량이론에서 빈곤은 단지 소득이나 재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회와 선택의 부족으로 본다(Kato et al., 2017). 소득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Alkire, 2002)이기 때문에, 일정 수입을 넘어섰다고 해서 빈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 휠체어와 타인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도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수입 자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형편이 마련되는가이다.

본 연구는 비판적 공간이론에서 이미 익숙한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개념에 기반하면서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역량 개념을 사회적 가치 논의와 연결시킨다. 공간적 역량 개념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가치 접근을 아우른 역할을 한

다. 공간적 역량 이론의 구체적인 강점은 같다. 첫째, 역량이론은 사회적 가치가 복지경제와 연관이 깊어 사회적 가치 연구에서 역량이론에 대한 논의(Certo and Miller, 2008; Mulgan, 2010, 2012)가 이미 활발했다. Weaver(2018)는 역량 접근이 사회적 가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대안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Auerswald(2009)는 역량이론에 기초하여 웰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논의했다. 역량이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간발전에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의 에이전트로서 사회적 기업인(Scarlato, 2013. 사회적 기업인의 혁신 사례를 위해서는 김동현, 2018 참고)을 바라보고 사회혁신의 ‘사회적인 것’을 역량이론 틀에서 정의하였다.

역량 개념은 사회적 가치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는 동시에 도시권과도 잘 연결된다. 역량이론은 도시권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이어서 두 개념을 비교, 결합하는 시도(Fainstein, 2012; Deneulin, 2014)도 있었다. Fainstein(2012)은 과정, 민주성, 다양성,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의 도시(the just city)로 가는 방법으로 도시권과 역량이론의 결합을 제안했다. Deneulin(2014)은 어떻게 역량접근이 도시권 논의에 기여하는지를 밝히며 역량접근을 통해 도시권 개념을 발전되는지 논하고 있다.

둘째, 역량이론은 발전(development, 개발로도 표현되는)의 최종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이론을 이어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의 목표를 상기시킴으로써 두 분야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의 접점에서 두 논의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을 위한 권리’와 같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인 내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놓인 개념이다. 정의, 평등, 공평과 같이, 권리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보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발전의 목표는 ‘인간역량의 확대’이며 그것을 중심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혁신의 목표가 역량이라는 점에서 사회혁신과 역량이론은 서로를 강화시킨다(Capriati, 2013;

Zeigler, 2010).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간 내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가 인간 삶의 질의 지속 가능성을 꾀하는 진정한 발전을 지향한다고 볼 때, 그 공통점은 공간을 형성하는 개발(변창흠, 2006)과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질과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접근의 특성이 사회적 가치에 호응한다. 도시권은 집합적인 개념인데, 역량개념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다. 왜냐하면, 가정, 특정계층, 이주민과 같이 사회구성 단위 조직의 역량을 중심에 놓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자칫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Sen, 1999). Sen은 또한 평가를 위한 역량 목록을 만드는 것은 인간역량의 복잡성이나 모호성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역량 논의 자체도 남성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용어로 논의되기 때문에 역량을 결정하는 과정은 열려 있어야 하고 역량 목록을 작성할 때 공정하고 일관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Parnell and Robinson, 2012). 이 열린 개념의 특징은 사회적 가치의 탐구적인 특성과 연결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도 열려 있어서 가능성을 가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Follet and Irina, 2015). Mulgan(2010)도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방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 역량이론 두 분야는 공통되게 공간적 측면을 소홀히 했다. 자본주의, 불평등 문제는 공간생산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발현되는 측면이 핵심적이어서 공간적 지역적 접근 없이는 그 비판과 대안 마련이 어렵다. 역량이론(Sen, 1992, 1999)의 공간적 측면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예를 들어, Corbridge, 2002나 Shin, 2011)이 공간연구에서 유용함을 주장했다. Robeyns(2003)는 공간역량의 개념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주장했고 Cronlid(2008)는 이동성을 역량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Shin, 2011) 개념은 역량이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켜 만든 개념으로, 공간을 생산/재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Shin, 2011). 즉,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공간을 주거, 이동을 위해 이용할 때 가용적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형편을 뜻한다. 이 역량은 같은 가구 구성원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다. ‘공간적 역량’이라는 개념도 역량이론의 장점처럼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몰두한다(Alkire, 2002; Nussbaum, 2003). 본 논문은 공간적 역량 개념이 사회적 가치와 공간연구를 접목시키는 매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간적 역량 확대라는 비판적 공간연구의 궁극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공간의 생산화 이용에서 공간적 역량이 제한되는 다양한 층위의 권력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정치적인 면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공간연구, 특히 도시권에서 제시한 주제에 기반하여 세 가지 공간적 역량 영역을 살펴본다. ① 장소 만들기(도시개발, 재개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② 공간이용(주거 공간, 노동 공간, 여가 공간 등), ③ 이동(일상 이동, 국내외 이주)에서의 공간적 역량이다. 첫째, 장소 만들기 역량이란 장소 만들기에 참여한 참여자가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실제 역량을 뜻한다(Shin, 2011). 장소 만들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참여, 접근성,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 등을 통해 몸담은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은 평등과 공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서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적인 환경을 갖춘 주거, 노동, 여가, 공공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이다. 최소한의 질을 갖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삶의 질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가지게 되는 주거 빈곤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었다. 셋째, 일상 이동, 국내외 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적 역량이다. 이동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사일, 장애로 일상 이동을 제한받거나 반대로 저개발국가에서 국제 이주하도록 내몰리지 않게 보장받는 이동의 자유를 뜻한다. 다음 장은 세 가지 차원의 공간적 역량의 구체적 내용을 다룬다.

5. 공간적 역량의 세 가지 영역

1) 장소 만들기 역량(place-making capability)

첫 번째 공간생산 역량은 다양한 장소 만들기인데, 도시개발에에서의 의사결정, 도시재생과 같은 도시발전 프로젝트에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사례를 포함한다. 주거와 이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이, 장소 만들기 역량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규모의 장소 생산, 구성, 재생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장소 만들기 역량은 사회적 가치와 공간연구에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여를 한다. 첫째, 공동체의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장소 만들기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장소 만들기를 보여준다. 이제껏 자본주의 도시개발에서는 공간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도시 성장을 추구한 엘리트들(성장연합, 성장레짐)이 만든 도시와 장소에서 많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았다. 사람이 자기가 속한 장소를 가꾸고 변화시키는 과정(Habarakada and Shin, 2019)에 참여할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에서 중심이 되는 지향점이자 인간개발이라는 큰 영역이다. 이 장소 만들기의 규모는 다양할 수 있다. 관여하려는 규모가 자기가 경험, 사용하는 규모를 벗어나더라도(예를 들어 지구 의 환경 문제) 그 공간의 장소 만들기에 관여하는 것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장소 만들기 역량을 제한하는 데는 지식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그 이유는, 사회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되는 지식경

제 사회에서 지식의 역할이 중요한데(Hall, 2013), 장소 만들기에서 지식은 권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Hacking and Flynn, 2017). 제도화된 전문가의 지식, 정부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사회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쉽다(Shin, 2016; Shin and Lee, 2017). 하지만 동시에 지역에 기반한 지식, 지식 소통과 공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Hess, 2007; Kim et al., 2017), 지역주민의 장소 만들기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둘째, 장소 만들기를 소수자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개발에서의 사회정의 문제가 소수자를 고려한 장소 만들기 정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설명된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 소수자가 장소 만들기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장소를 점유하거나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곧 주민, 시민의 자율과 혁신 실천이다(김동완·신혜란, 2016).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에서 불이익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장소 만들기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혁신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자주 보이는 장소 만들기 사례는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이란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방식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운동이다. 유럽과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리빙랩 방식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 보여준 리빙랩의 특징은 온라인을 통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주도하는 점, 실험과 검증을 통한다는 점, 지역 기반 혁신이어서 지역 공동체에 기반은 둔다는 점, 지역의 기술과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신상범, 2020). 한국의 리빙랩은 유럽에 비해 정부 주도적이다. 중앙정부가 사회혁신 방법으로 리빙랩을 도입하고 부산, 김해와 같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분야가 주도하고 있다(박준호 외, 2019). 육아 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강은진 외, 2020),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 주도과 지역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2) 공간이용 역량

두 번째 공간적 역량은 공간을 이용하는 자유이다. 이 역량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적당하고 인간적인 일터를 보장받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에서 서민주거 안정(이호진·고성수, 2020) 논의가 이 주제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이 대다수 거주민이 감당할 수 없이 된 많은 대도시에서 이 공간이용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사회에서는 기본 주거권, 평등,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이 만연했다. 도시의 주택은 자본주의 위기를 지연하는 역할과 함께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곽노완, 2012). 또,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근무시설을 갖춘 주거공간에 관한 관심과 문제가 불거졌다(Shin, 2021).

이 공간이용 역량 개념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가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누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대표하는가의 비판에서 시작되고, 화장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공간이 되어 있는가,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가, 동성애자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곳이 있는가 등의 문제에까지 이른다. 근대 식민지의 여성공간(태혜숙 외, 2004), 여성공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현재, 2012), 여성 청소노동자의 공간(안숙영, 2012) 등이 여성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도시 공간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생기고, 모유수유 장소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식의 실천이 생기는 것도 이 장소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 성찰이 일어난 것의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여성주의 지리학과 여성학에서 떠오른 쿼어 공간 주제도 정체성으로 인해 제한받는 공간이용 역량에 관한 것이다.

3) 이동 역량

세 번째 이동 역량은 일상 이동, 국내 이동, 국제 이동에서 의사에 반해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와 이동을 하고 싶지만 못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뜻한다. 2000년대 들어서 이동 연구에서 이동 자체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역량, 가능성, 자유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Kaufmann, 2002; Shin, 2011: 2356).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로 선택한 것과 이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애당초 없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젠더화된 이동 연구(Morin, 2007; Secor, 2002, 2004)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다.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보육과 가사노동을 떠맡고 있어서 직장, 어린이집, 집, 반찬가게로 다녀야 한다면, 일어난 이동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Guelk and Morin, 2007). 이민자 여성, 어린이, 노인 및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여성들의 이동 역량은 제한된 경우가 많다(Robeyns, 2003; Uteng, 2009). 그 전에 학문 영역에서 무시되었던 일상 이동은 시간 지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며, 여성의 시공간 이용은 지역사회와 보육시설, 노동시간 조건, 가정 내 젠더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교외 지역 중산층 가정이 교외로 이주한 후 여성들의 시공간 이용은 그들이 담당하는 집안일, 가사도우미 존재 여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로즈, 2011). 또한 많은 중산층이 교외로 이사하자 차가 없는 가사도우미들이 일하러 갈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산층 주부들은 가사일에 매여 외출할 자유를 더 제한당했으며, 당시 위생 기준이 더 강화되자 여성들은 더욱 가사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동성과 일상 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였다(McEvoy et al., 2012).

이동에는 사회적·정치적으로 형성된 국제 이주와 다문화가 가져오는 공간의 역동성 또한 중요하다(정현주, 2018; Silvey, 2000, 2004). 가령, 여성이 이주를 하긴 하나 그 여성의 결정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동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자유’의 측면에서, 이주라는 functioning은 이루어졌지만 공간적 역량은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자국에서 찾기 힘든 돈 벌 기회를 위해 이주를 하거나, 가사노동과 돌봄의 지구화로 전 지구적으로 젠더화된 노동 분업(김현미, 2008)은 여성들의 국제 이주를 촉진시켰는데, 그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동 역량이 제한된 경우일 것이다. 가족 단위로 하는 국제 이주 결정을 할 때 여성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그렇다. 자유로워 보이는 이동도 실제로는 승진, 생존, 자기 스펙을 쌓게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앞선 장소 만들기과 공간이용 역량은 어느 정도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긍정적인 데 반해, 이동 자체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다만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자유를 누릴 만큼 자원이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가의 문제이다. 공간적 역량 관점은 이동이 사회뿐 아니라 가정 내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동이 권력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는 실천적 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

6. 결론: 공간적 역량의 학술적·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논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성찰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안을 내려고 했음을 밝히고 이 둘을 접목하는 이론화를 시도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역량 확장이며, 사회적 가치 논의와 역량이론에서 부족한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켜 ‘공간적 역량’ 개념을 제안했다. 사회적 가치와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사회혁신 개념은 방법론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준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이다. 유한한 공간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장소의 특정한 성격을 형성

하는 장소 만들기 역량, 공간을 이용하는 역량,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개인과 집단의 삶과 사회구조에서 확보하고 발전시켜야 할 주요 역량이다.

이 글의 학술적 기여는 사회적 가치에서 장소 만들기, 공간이용, 이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역량이 평등, 공정, 공유에서 주요한 주제임을 여러 경험 연구에서 확인하고, ‘공간적 역량’을 사회적 가치와 공간연구의 연결고리로 제안한 것이다. 공간적 역량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논의의 공간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뚜렷이 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공간적 역량 개념이 정교화·구체화되거나, 다른 개념을 통해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결의 정책적 함의는 뚜렷하다. 정책 분야에서도 공간적 역량이 주요한 요소로 고찰되면 지역 문제와 공간, 장소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그 장소 만들기과 공간이용에서 인간의 자유가 보장받는가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잊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21.08.27

심사완료일: 2021.09.25

게재확정일: 2021.09.27

최종원고접수일: 2021.09.29

Abstract

The Encounter betwee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and Social Value Discussions through the Concept of Spatial Capability

HaeRan Shin

This study i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patial aspect of social value that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It reinterprets existing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on space to link them to discussions on social value. This research helps clarify the approaches i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so that they ultimately pursue and develop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To that ai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is suggested in three areas including place-making, the use of places, and mobilities. The intertwining of social value and spatial capability refocuses the intent of critical geography to suggest flexible and creative innovations for social change.

Keywords: Social value, social innovation, capability theory, space, place-making, residency, mobilities

참고문헌

- 강은진·황명화·박진아·조혜주. 2020.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리빙랩 활용 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21~34쪽.
- 강현수. 2021.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문고.
- 고동현 외.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 파주: 한울아카데미.
- 곽노완. 2012. 「도시토지공유와 주거평등권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3호, 238~265쪽.
- 권청재. 2019. 『국책연구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2019.2, 120
- 김경동. 2019. 『사회적 가치: 문명론적 성찰과 비전』. 파주: 푸른사상사.
- 김동완·신혜란. 2016. 「대항풍행 그리고 성미산 스타일: 발전주의 도시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제111권, 174~204쪽.
- 김동현. 2018. 《성공하는 사회적 기업가는 어떻게 혁신하는가: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와 올바른 성공을 이룬 사회적기업 36》.
- 김수현. 1997.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공간과 사회》, 제9권, 270~277쪽.
- 김용창. 2019. 「자본주의 사적 토지소유의 역사적 한계와 대안적 토지재산권의 구성」. 《국토계획》, 제54권 제2호, 141~159쪽.
- 김용창. 2021. 「부동산 불포속도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3호, 41~83쪽
- 김용희·한창근. 2020. 「사회적 가치이슈를 다룬 언론기사의 의미연결망 분석: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중앙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2호, 201~229쪽.
- 김의영·미우라. 2020. 「지역기반 시민정치교육을 통한 대안적 지식 창출: 성격, 한계, 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1호, 163~196쪽.
- 김태영·정효정·정원희·송성수. 2019. 『사회적 가치 이해와 평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 김현미. 2008.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이론》, 제19권, 276~293쪽.
- 김슨·그레엄. 2013. 「제2장 자본주의와 반본질주의, 그 모순적 만남」. 엄은희·이현재 옮김.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여성주의 정치경제비판』. 알트.
- 라영재. 2020.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의 변화와 영향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171~194쪽.
- 린다 맥도웰. 2010. 「제7장 국민국가를 젠더화하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

- 박명규·이재열 엮음. 2018.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 박배균. 2009.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공간과 사회》, 제31권, 49~87쪽.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도시행정학보》, 제28권, 3호, 75~104쪽.
- 박승규. 2009. 『일상의 지리학』. 책세상.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제 25권 제1호, 95~139쪽.
- 박준호·박정우·남광우. 2019.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연구》, 제35권 제3호, 33~44쪽.
- 변창흠. 2006.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본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평가」. 《공간과 사회》, 제26권, 120~153쪽.
- 손정원. 2006. 「개발국가의 공간적 차원에 관한 연구~1970년대 한국의 경험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41~79쪽.
- 신상범. 2020. 「기후위기와 도시의 대응: 리빙랩 사례」. 《철학과 현실》, 제127호, 127~143쪽.
- 신수임. 2020.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성 개념 고찰」. 《공간과 사회》, 제73권 제1호, 209~239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4호, 9~35쪽.
- 안숙영. 2012. 「글로벌, 로컬 그리고 젠더」. 《여성학연구》, 제22권 제2호, 7~32쪽.
- 안숙영. 2012. 「젠더와 공간의 생산」. 《여성학연구》, 제22권 제3호, 89~112쪽.
- 염찬희·엄은희·이선옥. 2010.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오도영·박준·김혜승. 2015. 「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2010년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52권, 227~266쪽.
- 우명숙·이나영. 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한국사회학》, 제 47권 제5호, 139~169쪽.
- 원구환. 2019.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5권 제2호, 1~22쪽.
- 이덕복. 1993. 「불량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정당성 문제」. 《환경논총》, 제31권, 282~297쪽.
- 이상우. 2020.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55~86쪽.
- 이상현. 2013. 「자연중심기술과 환경철학의 새로운 관점 모색」. 《환경철학》, 제 15권 제15호, 145~171쪽.
- 이석희, 김수현. 2014. 「한국 주택체제의 성격과 변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48권, 5~37쪽.
- 이승원·이명신·김소연·장훈교·심은정. 2017. 《사회혁신 교육 설계 및 협업 방안 연구》. 경희

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시NPO지원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 이영아. 2019. 「우리나라 도시재생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13~2018년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공간과 사회》, 제69권, 192~232쪽.
- 이재열. 2019.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한국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1~33쪽.
- 이현재. 2012.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젠더와 문화》, 제5권 제1호, 41~69호.
- 이호진·고성수. 2020. 「정책모기지의 공급효과와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부동산학연구》, 제26권 제1호, 65~78쪽.
- 임조순·양준호. 「정치경제학적 도시연구의 동향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 맑스주의의 그리고 제 도주의적 도시론의 과거와 현재」. 《인천학연구》, 제1권 제26호, 7~67쪽.
- 장용석·조희진·김보경·황정윤·이영동. 2018.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 정서화. 2017. 「사회혁신의 이론적 고찰: 개념의 유형화와 함의」. 《기술혁신학회지》, 제20권 제4호, 888~914쪽.
- 정인숙. 2019. 「방송정책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평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 제4호, 203~230쪽.
- 정철. 2019. 「사회적 가치 창출과 건설산업의 미래」. 《대한토목학회지》, 제67권 제10호, 16~17쪽.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젠더와 문화》, 제5권 제1호, 105~144쪽.
- 정현주. 2018.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의 공간적 변증법」. 《공간과 사회》, 제266권 제4호, 264~272쪽.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 읽기. 개념, 쟁점과 대안』. 파주: 한울.
- 주성재·노경란. 2018.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경제지리학의 연구 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1권 제2호, 173~191쪽.
- 진종현. 2017.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기본법 개정방향」.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6호, 683~699쪽.
- 질리언 로즈. 2011. 「제2장 여성과 일상공간」. 정현주 옮김.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
- 최병두. 2009.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파주: 한울.
- 최병두. 2018. 「도시적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576~598쪽.
-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제53권 제2호, 149~172쪽.
- 태혜숙·김연숙·김윤선·문영희·이경·이윤미·이은경·임옥희·임우경·정미옥·정혜영. 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서울: 도서출판여이연.

- 한상진. 2019. 「공동자산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제23권 제2호, 43~65쪽.
- 홍기창·김천권. 2012. 「성장기제론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1~17쪽.
- 황진태·정현주. 2015.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1호, 123~139쪽.

- Alkire, S. 2002. *Valuing Freedoms: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Poverty Reduc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U. and E. Beck-Gernsheim. 2014. *Distant Love: Personal Life in the Global Age*(R. Livingstone, Trans.). Cambridge, U.K.: Polity, 1~19(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Chatterton, P. 2016. "Building transitions to post-capitalist urban common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41, No.4, pp.403~415.
- Chatterton, P. and A. Pusey. 2020. "Beyond capitalist enclosure, commodification and alienation: Postcapitalist praxis as commons, social production and useful doing."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4, No.1, pp.27~48.
- Chiappero-Martinetti, E., C. H. Budd, and R. Ziegler. 2017. "Social innovation and the capability approach—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Vol.18. No.2, pp.141~147.
- Deneulin, S. 2014. *Creating more just cities: The right to the city and capability approach combined* No.32). Bath Paper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Wellbeing.
- Donaghy, G. 2013. "Canadian diplomacy and the offshore islands crisis, 1954-1955: A limited national interest." *International Journal: Canada's Journal of Global Policy Analysis*, Vol.68, No.2, pp.242~254.
- Elster, J. 1983. *Sour Grapes: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llet, C. and I. E.Ianko. 2015. *Understanding social value creation: A process study of Romanian beggars and Swedish volunteers*. Master Thesis Business Administration, Uppsala University Campus Gotland.
- Gregory, D. 1986. Spatial strcutre, In R. J. Johnston et al.(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seco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2004. *The colonial present*.(pp.18~19). Victoria: Blackwell Publishing.
- Guelke, J. K. and K. Morin, 2007. "Missionary Women in Early America: Prospects for a Feminist Geography." In Morin, Karen M.and Jeanne Kay Guelke(eds.)

- Women, Religion, and Space: Glob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Faith.*
New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 Habarakada, S. and HR. Shin. 2019. "Transnational Religious Place-Making: Sri Lankan Migrants' Physical and Virtual Buddhist Places in South Korea." *Space and Culture*. Vol.22, No.4, pp.474~488.
- Hacking, N. and A. Flynn. 2017. "Networks, power and knowledge in the planning system: A case study of energy from waste." *Progress in Planning*, Vol.113, pp.1~37,
- Hall, B.L., 2013. "Knowledge, democracy and action: An introduction." In Hall, B. L., Jackson, E. T., Tandon, R., Fontan, J. M., & Lall, N. L.(eds.) *Knowledge, Democracy and Action: Community-University Research Partnership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3~16.
- Hanson, S. and G. Pratt. 1995. *Gender, Work, and Space*. London, NewYork: Routledge.
- Harvey, D. 2012. *The right to the city*. In *The Urban Sociology Reader*(pp.443~446). Routledge.
- _____. 2018. *A companion to Marx's Capital: The complete edition*. Verso Books.
- Hess, C. and E. Ostrom. 2007.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MA: Cambridge. the MIT Press.
- Kato, S., Ashley, S. R., & Weaver, R. L. 2018. "Insights for measuring social value: Classification of measures related to the capabilities approach."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29, No.3, pp.558~573.
- Kim, K., HR. Shin, M. Kim, and J. Y. Jang. 2017. "Knowledge communication and non-communication in the water governance of the Saemangeum area, South Korea."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156, pp.796~804.
- Law, R. 1999. "Beyond 'women and transport': towards new geographies of gender and daily mobil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3, pp.567~588.
- Lindgreen, A., N. Koenig-Lewis, M. Kitchener, J. D. Brewer, M. H. Moore, and T. Meynhardt. 2019. *Public Value: Deepening, Enriching, and Broadening th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NY: Routledge.
- Longhurt, R. 2002. "Geography and gender: a 'critical' tim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6, No.4, pp.544~552.
- Mackenzie, S. and D. Rose. 1983. Industrial chang, the domestic economy and home life. In. Anderson, J. et al.(eds) *Redundant Spaces in Cities and Regions? Studies in Industrial Decline and Social Change*, London, Academic Press,

pp.155~200.

Massey, D. 1990.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cDowell, L. 1993. "Space, place and gender relations: Part I. Feminist empiricism and the geography of social rela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17 No.2, pp.157~179.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U of Minnesota Press, 1999.

McKenzie, J. 2001. *Perform or Else: From Discipline to Performance*. London, GBR: Routledge.

McKittrick, K. 2006. *Demonic Grounds: Black Women and the Cartographies of Struggl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92

Monk, J. and S. Hanson. 1982. "On not excluding half of the human in huma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34, No.1, pp.11~23.

Moore, M. 2013. *Recognizing Public Valu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oss, P. 2007 *Feminisms in Geography: Rethinking Space, Place, and Knowledg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Mulgan, G. 2012. "Social innovation theories: Can theory catch up with practice?" In Franz, HW. J. Hochgerner, and J. Howaldt.(eds) *Challenge Social Innovation*. Springer, Berlin, pp.19~42.

Mulgan, G., S. Tucker, R. Ali, and B. Sanders. 2007.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Oxford Said Business School.

Nussbaum, M.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2/3), pp.33~59.

Parnell, S. and J. Robinson. 2012. "(Re)theorizing cities from the global south: Looking beyond neoliberalism." *Urban Geography*, Vol.33, No.4, pp.593~617.

Robeyns, I. 2003. "Sen's Capability Approach and Gender Inequality: Selecting Relevant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Vol.9, No.2-3, pp.61~92.

Rose, G. 1993. *Feminism &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carlato, M. 2013. "Social enterprise, capabilities and development paradigms: Lessons from Ecuador."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49, No.9, pp.1270~1283.

- Schmalzbauer, L. 2008. "Family Divided: the Class Formation of Honduran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a Journal of Transnational Affairs*. Vol.8, No.3, pp.329~346.
- Schmid, B. and T. SJ Smith. 2021. "Social transformation and postcapitalist possibility: Emerging dialogues between practice theory and diverse econom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5, No.2, pp.253~275.
- Scholten, C., T. Friberg, and A. Sandén. 2012. "Re-Reading Time-Geography from a Gender Perspective: Examples from Gendered mobility."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103, No.5, 584~600.
- Schumpeter, J. 1909. "On the Concept of Social Valu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23, No.2, pp.213~32.
- Seager, J. and L. Nelson.(Eds.). 2004. *Companion to Feminist Geography*. Williston, VT, USA: Blackwell Publishing.
- Secor, A. 2002. "The Veil and Urban Space in Istanbul: Women's Dress, Mobility and Islamic Knowledge." *Gender, Place and Culture*. Vol.9, pp.5~22.
- _____. 2004. "There is an Istanbul that belongs to me: citizenship, space, and identity in the cit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4, pp.352~68.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 _____. 2002. *Rationality and Freed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in, H. 2011. "Spatial Capability for Understanding Gendered Mobility for Korean Christian Immigrant Women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Vol.48, No.11, pp.2355~ 2373.
- _____. 2016. "Re-making a place-of-memory: The competition between representativeness and place-making knowledge in Gwangju, South Korea." *Urban Studies*, Vol.53, No.16, pp.3566~3583.
- _____. 2021. "Governing the city through im/mobilities during COVID-19-technological self-governance."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pp.1~15.
- Shin, H. and K. Lee. 2017.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trans-sectoral mobilities: The new dynamics of adaptive preferences in the case of transport planning in Seoul, South Korea." *Cities*, Vol.65, pp.87~93.
- Shin, H. and Q. Stevens. 2014. "Debates around Cultural Re-imaging and Culture-led Urban Regeneration: The Politics of two Festivals in Gwangju and Glasgow."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1, No.6, pp.628~652.
- Sonn, J. W. and H. B. Shin. 2020. "Contextualiz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 The state and high-rise apartment clusters in Gangnam, Seoul.”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Vol.110, No.3, pp.864~881.
- Tiwari, M. 2017. “Exploring the role of the capability approach in social innovatio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Vol.18, No.2, pp.181~196.
- Warf, B. 2010. *Encyclopedia of Geography Critical Human Geography*. University British Columbia-vancouve.
- Weaver, R. L. 2018. “Re-conceptualizing social value: applying the capability approach in social enterprise research.”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Vol.9, No.2, pp.79~93.
- Wieland, J. 2017. *Creating Shared Value: Concepts, Experience, Criticism*. Cham, Switzerland: Springer.
- Yeoh, B. SA, S. Huang, and T. Lam. 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 *Global Networks-a Journal of Transnational Affairs*. Vol.5, No.4, pp.307~315.
- Ziegler, R. 2010. “Innovations in doing and being: capability innovations at the intersection of Schumpeterian political economy and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Vol.1, No.2, pp.255~272.